

학원선교교육주일 자료집

2014년 3월 9일

**학원선교교육주일을
지킵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학원선교회 · 교목회

목

차

03	감독회장 목회서신 2014 학원선교교육주일 목회서신	임준택 감독(감독회장 직무대행)
04	설 교 1 보내노라	고신일 감독(교육국 위원장)
08	설 교 2 또 하나의 예수 사람	박춘희 목사(새소망교회)
12	학원선교회장 메시지 학원선교교육주일을 맞이하여	김종훈 감독(학원선교회 회장)
14	인사말 학원선교교육주일을 성수하자	정현범 목사(교육국 총무직무대리)

자 료

15	학원선교교육주일 예배문	교 육 국
18	교목활동1 대전대신고교	서정식 목사
21	교목활동2 인덕대학교의 전국고등학생 인덕찬양경연축제	구완서 목사
23	우리교회의 학원사역1 합천 초계중앙교회	이진용 목사
30	우리교회의 학원사역2 충주 예수마을교회	정지윤 목사
33	계통학교와 자매교회의 동역활동 - 자교교회와 배화여고	이기성 목사
36	명지고교 교장선생님의 학원선교교육	황남택 장로
39	감리교계통학교-교회 자매결연현황	
40	감리교계통대학교 현황	
41	관련기관 임원 현황	
42	기독교학교 교육현장	

2014년 학원선교교육주일 목회서신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 준 택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학원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아오는 3월 9일은 학원선교교육주일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선교초기부터 교육사업을 통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사 아펜젤러는 의술을 배우려고 스크랜튼에게 찾아온 학생들을 위한 영어교육을 하면서 1886년 6월 서울에 "배재학당"을 정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스크랜튼 대부인은 1885년 10월 정동에 선교부지를 마련하고 여학당과 사택을 마련하여 "한국의 부녀자들이 보다 좋은 한인이 되며, 한국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하여 훌륭한 한국"이 되게 하자는 목적으로 시작하였고 명성황후께서 "이화학당"이란 이름을 지어 보내주었으며 점차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배화학당 및 평양 광성학교, 정의여학교, 영명학교, 인천 송도학원 등을 건립하여 교육사업에 전력하였습니다.

지금의 교육현장은 기독교학교 설립이념과 학교정책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예배와 종교교육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독교학교 설립이념과 교육특성을 무시한 것이며 기독교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교차하고 정보화시대의 특성이

교육현장에 영향을 끼치며 세속주의 물결 속에 신앙적인 질문은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교육의 위기는 나라의 위기입니다. 학원선교교육은 단지 한 개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인격과 교양, 신앙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신앙과 인격과 교육으로 세워 갈 때 건강한 교회와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원선교교육주일을 맞아 모든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학원선교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교장과 교목,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육현장을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장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19~21절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위원장

고신일 감독

예수님의 명령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 중에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막 8:17)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였고 때로는 사람들을 혼내고 야단치기도 하셨습니다. (마 12:34)

예수님께서 말씀은 통해 약속을 주셨고 (마 4:19, 막 11:24), 가르치셨으며(마 25:13, 눅 20:25), 위로하기도 하셨습니다(마 11:28, 눅 7:47~48). 특별히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 곧 몇 가지 ‘위임 사항(commission)’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졌던 권위, 그리고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권위’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심판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막 16:15~16)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우리가 그 증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눅 24:46~48)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삼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그리스

도인을 향해

요한복음의 마지막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 20:21)

교회는 이와 같이 “무엇 무엇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해 처음 시작 되었습니다. 또 기독교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천 년 전 예수님의 명령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고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셈입니다.

안식 후 첫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마지막 명령을 주셨던 날은 ‘안식 후 첫 날’ 오늘로 치면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낸 후의 첫 날인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제자들 중 베드로와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가서 비어있는 무덤과 벗어져 있는 세마포를 직접 보았습니다(요 20:1~8).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가

지 했습니다(요 20:11~18).

그러나 저녁이 되어도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요 20:19).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 문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한들 세상은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 지도자들이 그대로 있었고 로마 통치자와 군인들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 21:19, 21)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평강’의 인사를 들었던 제자들은 안도의 한 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 반가웠고 안심할 수 있어서 기뻐했으며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환호하던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 20:21)

‘보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 일을 할 테니 너희는 나와 떨어져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인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동행을 기대하면서 이제야 살 길이 열린 것 같은 평안을 되찾았던 제자들에게 ‘너희를 보낸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현실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자 마자 ‘다시 나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보냄 받은 자는 행동하는 자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재회의 기쁨

을 뒤로 미루고 그들을 다시 보내신 까닭은 복음이 문을 꼭 닫고 방안에 모여 있는 제자들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것이고 복음은 확장되어야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 van Rijn, 1606~1669)에게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렘브란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면 되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 망설이며 주뻑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탐색하며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인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우리는 지금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을 전할 생각은 접어두고 설교가 어떻고, 말씀의 신학적 의미가 어떻고 하는 말 잔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고민하며 망설이다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시작조차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몇 년 전 교통안전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득자의 65%가 실제 운전 경험이 없는 이른바 ‘장롱면허’ 소지자라고 합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초보 때 무섭고 겁이 난다고 운전을 기피하면 영원한 장롱면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면허를 딴 사람은 차를 직접 운전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갑에 가만히 모셔 둔 면허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면허증이 주어졌습니다. ‘파송 면허증’, ‘전도 면허증’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느라 행위로만 만족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면허증을 썩히는 일입니다. 신약성경 속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았으며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 삶을 얻은 사람들이 복음서에만 40명 가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34명은 친구나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혼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는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허브 밀러(Herb Miller) 박사의 책 『아스팔트 위의 낚시질(Fishing on the Asphalt)』을 보면 미국의 경우 보통의 기독교인들이 6천 번 설교를 듣고 8천 번 기도하고 2만 번 찬송하면서 자신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타인에게 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둘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쓸모없는 운전면허처럼 장롱 속에 묻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우리는 느긋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 윌버 채프먼(John Wilbur Chapman, 1859~1918)이라는 목사님이 한 집회에 모인 4,500명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인 사람들 중에는 10살 이전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 400명, 10~14살 사이에 신앙을 가진 사람은 600명, 14~16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400명, 16~20살 사이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1,000명 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안정 되고 가정을 꾸렸을 때, 즉 36세 이후에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작 24명에 불과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한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때가 바로 세상으로 보냄 받은 성도의 역할을 다 할 때입니다. 미루면, 늦습니다. 때를 놓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예수님을 전하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보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보내노라!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인 피에르 가르맹(Pierre Cardin, 1922~)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동전을 던졌다고 합니다. 치마 길이를 길게 할 것인가 짧게 할 것인가를 놓고 마치 도박을 하듯 동전 하나에 그 결정을 맡긴 것입니다. 이처럼 우연에 의지했던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한 번 결정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선택이 맞느냐 아니냐는 선택한 대로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을 살며 예수님이 보내시고 명령하신 일들을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교인들이 세상을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교회생활을 하면 사탄은 교회를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교회생활만 하려고 하면 사탄은

우리가 교회에만 정신을 팔게 하고 도리어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 자기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면 눈을 반짝이고 귀를 기울이는 게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4:19) 요즘 같은 험한 세상에 누가 이 얘기를 들었으면 순진한 사람들을 잡아 가서 이용하는 인신 매매단 정도로 오해할 법한 말이었습니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익숙한 일, 바로 그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직업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상

황들을 통해서 변함없이 ‘사람을 낚고’싶어 하십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다른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익숙한 내 일, 내 직장, 내 가족, 내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고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그 곳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낸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되새기며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므로 칭찬받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예수 사람”

마태복음 9장 35~38절



새소망교회

박춘희 목사

J. O. 샌더스가 쓴 ‘영적 지도력’에 나오는 조지 리들(George Liddell)의 ‘내게 한 사람을 주소서’라는 시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믿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그리고 인류
의 이름을 축복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혀가 하늘의 불에 접촉된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가장 어둔 맘을 밝혀
높은 결심과 깨끗한 열망을 지닌 마음들이 되게
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 있는 한 선지자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는 칼이 아닌 기도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가 보는 환상에 성실한 사람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저는 무너진 당신의 성소를 재건하고
그 앞에 민족들로 무릎 꿇게 하겠나이다.

조지 리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날 이 시대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즉 인재를 찾고 있습

니다.

그저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필요
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입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학원선교
교육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감리교계통
학교는 그 건학이념이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
여 나라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큰 그릇으
로 쓰임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
다.

예레미야 4장 25절에는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라고 하였고,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너희는 예루살렘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
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
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얼마나 안타까
운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심혈을 기울
여 목회하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
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본디 창조 때의 본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예수 사람”이 됩니다.

1. 예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막 10장 42-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지배하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인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인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껏 이렇게 말씀한 이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물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본문내용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임박한 십자가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이런 청탁 소리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화를 냅니다. 급기야 제자들 사이에 자리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않고,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때하신 말씀이 42-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한 참된 인물의 특징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준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부터 섬김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느냐입니다.

우리 주님도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고 하셨습니다.

더러는 오늘날 교회나 교인들이 욕심이 많다합니다만, 저는 아주 정당하게 교인들이 승진도 하고 진급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도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공부하여 학위도 취득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아는 것은 다스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고, 더 효과적으로 섬기고, 더 바람직하게 섬기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공부하지 않으면 평생 가난하거나 남의 종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 하여라!”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너 그렇게 공부해서 나중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여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해 보십시오.

“네가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공부하여 검사가 되면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어. 공부하여 재벌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 공부하여 정치가가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공부하여 의사가 되면 병든 사람들을 고칠 수 있어. 그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한 예수의 사람, 즉 계급, 지위, 직책과는 전혀 관계없이, 타인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인물이 바로 기독교 학교를 통하여 양성됩니다.

2. 이러한 예수 사람은 어디서 나오니까?

인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12제자, 그들은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같고 닮아서 비범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열두 명 중에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세리 마태와 그 공동체의 회계를 맡은 가롯 유다입니다. 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모두 어부거나,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제자 중에 요한을 예로 들어 봅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한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의 복음서와 편지에서 두드러지게, 그리고 인상 깊게 하고 있는 말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렇지만 본디 요한이라는 인물은 야심만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 예수천하가 실현될 때 좌우요직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막 10:35절).

또 요한은 타고난 성품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눅 9:51-56). 베드로만 불같은 성품이 아니라 요한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고,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인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분통이 터진 요한은 자기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얼마나 불같습니까? 그래서 이 형제를 가리켜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막 3:17).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대체로 충동적으로 행동하여 실수를 자주합니다.

이런 인격적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매만지시고 다듬으셔서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인물이 된 요한은 예수님의 최후만찬을

위촉받아 준비하였고, 십자가상의 예수님으로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도록 부탁받았고, 밋모섬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 중에 미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에게 교육 받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큰 인물이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학교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지식 전달만 하는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말 그대로 전인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3. 그러면 어떻게 예수 사람, 신앙의 엘리트가 됩니까?

인물은 인물을 통하여 길러집니다. 그것을 교육이라 말합니다. 인물은 교육이라는 희생의 거름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브랭글(Samuel Rogan Brengle)이라는 구세군 사령관은 “인물은 승진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눈물로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기독교교육은 신앙교육이기 때문에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귀농인이 방송국 기자와 인터뷰를 합니다. 회사 다닐 때에는 상사 눈치 봐야 하고, 늘 스트레스였는데, 농사는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주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눈치 볼 것 없어서 참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눈치 봐야할 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하늘 눈치는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교육은 교사의 수고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합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학교의 교사들은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교회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내일을 이끌어 나갈 '다음세대'를 키워내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대학교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학원에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가슴에 심겨지면 어떤 엄청난 결과를 맺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시골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여름 방학 숙제로 오이를 길러서 관찰일기를 쓰게 하였습니다. 매일 매일 자라나는 모습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저 보아서는 오이가 커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다. 그러나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오이의 크기를 자로 재어서 기록하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그 오이는 쑥쑥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그 오이를 관찰하면서 신기해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육은 이와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서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들은 부모의 사랑과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말합니다. 지금 눈물로 뿌린 사랑과 가르침과 교육이 훗날 훌륭한 인물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옛날 학교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 바로 그들을 통하여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닮고, 그분의 삶을 살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될 때 가능합니다. 이 일을 기독교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감리교회는 70여개 계통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을 통하여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목회 사역이 이 시대에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학원선교교육주일을 지키며, 이 예배가 학원을 향한 많은 관심과 선교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학원선교교육주일을 맞이하여



학원선교회 회장
김종훈 감독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리교회 성도들과 감리교계통학교의 교목과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매년 3월 둘째 주일은 전국 감리교회가 감리교계통학교와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학원선교교육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학원선교교육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8월 3일 정동에서 고영필, 이경나 두 학생을 데리고 교육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마태복음 20장 26-27절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저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배재학당을 세우고 기독교적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선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효시로 하여 스크랜튼이 1886년 5월 31일에 이화학당을, 남감리회 캠벨 여사는 1898년 10월 2일에 배화학당을 세웠습니다. 또 배재학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선교사들은 1887년 10월 8일에 지금의 정동제일교회의 전신인 뱌엘교회를 세웠고, 배화학당에서 시작된 예배는 종교교회와 자교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학원선교교육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영화(1892), 광성(1894), 정진(1896),

정의(1899), 루시(1903), 호수돈(1904), 송도(1904), 미리홈(1906), 승덕(1906) 등의 학교가 설립되고 기독교 정신 속에서 육영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원선교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안티 기독교의 SNS 등을 통한 활동, 교회 내부적으로는 기복신앙·개교회주의·성장위주로 인한 맘몬 우상숭배·교회와 사회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 등으로 기독교의 사회적 공신력이 상실되고 복음전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선교교육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현장이 어둡고 사회에서의 복음전파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학원선교교육주일을 맞이하여 감리교회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학원선교교육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으로 훈련된 지도자를 양육하는 것은 감리교회와 감리교계통 학교의 사명

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배려하는 진정한 지도자를 세워가는 사명을 학원선교교육을 통해 감당해야 합니다.

학원선교교육주일을 지키는 감리교회와 성

도들은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우리의 자녀와 청소년을 위한 영혼 교육을 위해 기도하며 협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학원선교는 우리의 가정, 교회교육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한 마음으로 학원선교교육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원선교교육주일을 성수하자



교육국 총무직무대리
정현범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감리교회와 감리교계통학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2014년 3월 둘째 주일(3.9)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학원선교교육주일로 정하고 학원선교교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감리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기독교학교를 세우고 학원선교와 인재 양성에 앞장섰습니다. 기독교학교를 설립하여 기독교 정신 속에서 육영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는 선교활동의 발판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현대식 신교육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나라를 위한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내어 훗날 민족계몽과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는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였으며 복음 전파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원선교교육은 심각한 위기

에 처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종자연 문제,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의 본격적인 시행 등으로 학원현장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학원선교교육주일을 기하여 기독교학교의 설립 취지에 따라 성경교육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바른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2014년 교육국은 “진정한 감리교인으로 양육하는 감리교교육”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감리교교육을 세워갑니다. 학원선교교육주일을 성수함으로 교회가 학생선교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역사회의 학원선교교육에 더욱 관심과 사랑을 쏟는 계기가 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감리교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학원선교교육주일을 위한 기도와 관심으로 감리교회의 학원선교교육이 더욱 활성화 되며 기독교학교의 건학정신에 따라 학원현장에서 기독교교육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학원선교교육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교목과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원/선/교/교/육/주/일 예/배/자/료

학원선교교육주일 예배



인근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 배 로 의 부 름		다	함	께
시 편 목 상		사	회	자
경 배 찬 양	 8장	다	함	께
교 독 문	 83번(빌립보서 4장)	다	함	께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함께 드리는 기도		다	함	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
해 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비행과 탈선
을 일삼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젊은이
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세기 교회
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인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
소서. 온 교우가 부모가 되고 교사가 되어 젊은이들을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청소년들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
시고 안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원선교교육주일을 위한 준비

1. 한 주일 전에 학원선교교육주일에 대한 홍보를 하고 교회 주변 초중고 학교 교장, 교사, 학생을 초청하되 특히 기독교생 동아리나, 교목이 있는 경우 초청하여 예배순서의 일부를 담당하게 한다.
2. 교회에 장학예산이 있으면 이날 예배 중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이날 헌금을 장학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도록 한다.
3. 학원 선교교육에 보다 적극적인 교회라면 지역의 교사, 학생들은 토요일에 초청하여 간담회, 자매결연 등을 가질 수도 있다.



교목활동

01



대전 대신고등학교 교목
서정식 목사

와우~ 아이들이 몰려와요!

교목들이 학교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이따금씩 감동되곤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전도사님! 먼저 한 가지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에 아이들이 얼마나 있나요? 어른들에 비해서 아이들이 너무 적지 않나요? 대부분 교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들이 떠나고 있는 게 현실일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요. 많은 교회들이 최신 교육관을 짓고 훌륭한 교육 전문 목회자와 교사진을 구성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아이들이 오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한편 학교는 매년 새로운 아이들이 수십 수백 명씩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만 되면 물밀듯이 몰려와 강당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어찌 흥분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의 희망은 학교입니다. 최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준비해도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 학교는 아이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황금어장이면서 양

어장입니다. 그래서 학원 선교 사역이 중요하고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목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학교 현장도 선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대가족제도의 붕괴로 아이들이 날이 갈수록 무례해지고 부모들의 과육과 각종 영상 특히 게임에 노출되어 아이들의 마음이 황폐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목들은 선교의 현장이 있고 전도할 아이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매주 강당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교실에 들어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르치며 기독교 학생 동아리를 지도하고 각종 상담을 합니다.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다양한 방법의 예배와 수업을 진행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목들은 날마다 외로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 관리자들은 선교 교육보다는 입시에 관심이 더 많고 대부분 교회 목회자들도 다음 세대의 교육보다는 어른 목회와 교회의 건축이나 확장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교회 목회자들은 중보기도 해

주고 섬겨주는 교우들이 있어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교목들에게는 이런 우군도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사들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 하시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교사들조차도 선교의 대상입니다.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 학교의 상황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하더라도 얼마든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돈보다도 여러분의 기도가 매우 필요합니다. 물론 끼워 넣기식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년 학원선교교육주일은 교회의 관심과 기도의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주변 학교들과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중보기도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솔직히 그동안 많은 담임목사님들이 학원선교교육주일의 중요성을 몰랐거나 교인들의 헌금 부담을 염려하여 지키지 않았으며 어느 날인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일부 교회들은 약간의 헌금을 송금하거나 장학금 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자위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헌금 안하셔도 됩니다. 학원선교교육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학교와 아이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돈은 많으면 더 많은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 좋지만 없으면 몸으로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느 대형 교회 원로 목사님의 통곡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며 자기는 '성공한 목회자'라고 자부하고 은근히 거만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 너무나 적은 아이들이 보였고 교회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몰려

왔습니다. 바로 그 때 자기는 다음 세대의 선교와 교육을 등한히 하고 너무 안일하게 묵회한 '실패한 목회자'임을 깨닫고 크게 후회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이대로 간다면 30년 후 아니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녹슬어 소리 내지 못하는 거액의 파이프 오르간과 함께 백발의 노인들 수십 명이 교회를 지키는 서구의 교회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교우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목회자들은 교회와 학교에서 상호 긴밀히 협조하며 다음 세대 기독교 교육을 위해 양공(兩攻) 작전을 펼쳐야 합니다.

학원선교교육의 동참은 단순히 학교나 교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미래와 우리나라 기독교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부디 금년 학원선교교육주일에 전국 감리교회의 뜨거운 합심 기도로 하늘 보좌가 진동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고령화되어가는 한국 교회에 새 바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고로 학원선교교육주일 동참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1. 주변 학교(특히 기독교학교)를 찾아가서 학교장(기독교학교는 교목) 또는 기독교 교사와 구체적인 선교 방법을 모색한다.
2. 학원 선교사를 학교에 파송(학교장 승인시 가능)하여 다양한 선교 사역을 하게 한다.
3. 목회자(특히 교육전도사나 교육목사)가 주변 학교를 매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자기 교회 학생들을 모아 기도하며 전도하거나 교사신

우회와 기독교학생동아리를 조직하고 인도한다.

4. 교우 중에 전문가(특히 예체능 분야)를 학교에 보내어 방과후 활동 지도교사로 참여하여 전도하게 한다.

5. 매주 학교 운동장이나 정문을 찾아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전도한다.

6. 학교 기독교학생회를 교회로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간식도 나누며 격려하고 전도한다.

7. 기독교학교의 경우 교목과 협조하여 채플시간에 연극이나 찬양 등 특별 순서 및 간단한 선물이나 간식을 준비해 가서 합동예배를 드리며 전도한다.

8. 학원선교교육주일에 주변 학교의 교목과 학생들을 초청하여 예배하거나 기독교사를 초청하여 간증을 나눈다.

9. 교우들 중에서 현직 교사나 교수들을 모아 학원선교회(또는 교사선교회)를 조직하여 소속 학교와 교실 또는 강의실에서 적극 전도하도록 지도한다.

10. 교회, 지방회, 연회 예산 편성시 학원선교비(또는 학교선교비)를 책정하고 교회로 불러 장학금 주기 보다는 학교에 가서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알도록 지원한다. 특히 기독교학교의 경우에는 매월 교목실에 선교비로 송금하여 교목이 적시에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덕대학교 교목
구완서 목사

전국고등학생 인덕찬양경연축제

인덕대학교는 1972년 하나님 뜻으로 은봉 박인덕 권사님이 세운 대학교이다. 감리교회 권사인 박인덕 여사는 선교목적으로 인덕대학교를 설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바쳐 남을 섬기자(God first, Others Second, Myself last)라는 정신으로 대학선교교육의 기틀을 잡았다. 해를 거듭하여 발전해오던 중, 1997년 필자에 의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인덕대학교회를 세움으로 대학선교교육의 구심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당시 인덕대학교의 이사장이었던 나원용 목사(전 감독)는 “여성권사님이 세운 대학에서 여성목사님이 대학교회를 세우니 대학과 교회가 하나 되어 크게 부흥할 것”이라고 격려했고, 당시 인덕대학교의 이사였던 보문제일감리교회의 박시원 목사, 시무장로였던 인덕대학교의 김락배 학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인덕대학교회를 설립하였다.

2013년 9월 13일 <제9회 전국고등학생 인덕찬양경연축제>가 열렸다. 2004년 가을에 <제1회 전국고등학생 인덕찬양경연축제>를 처음 준비할 때는 대학 내외에서 아주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는 전국에 산재한 고등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 쉽지 않고, 어떻

게 대회를 운영 관리할 것이며, 또한 일회성으로 끝나기 쉬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냐는 것이었다. 사실 대회를 구상하고 실현에 옮기려는 필자 역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내게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한 가지면 충분했고, 또한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 찾는 자에게 길을 여시는 주님,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여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뿐이었다. 어렵게 학장님의 결재를 받고,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드디어 전국고등학생 인덕찬양경연축제가 열렸다. 첫 대회는 아주 대성공이었다. 전국에서 찾아온 천여 명의 고등학생 찬양팀들이 인덕대학 강당 주변에 가득 했으며, 여기 저기 모여 둥그렇게 둘러서서 손잡고 기도드리는 모습에 그동안 대회를 준비하면서 겪었던 피로가 한꺼번에 사라졌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감격의 추수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린다. 그동안 학생들을 경연대회에 출연시키기 위하여 현장에서 피와 땀을 쏟은 교목들과 지도교사들의 헌신에 대하여도 깊이 감사한다. 모두 학원선교의 동역자들이다.

2013년 9월 13일 제9회 대회에는 기독교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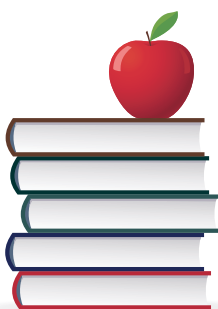
감리회 교육국에서 협찬을 해 주었다. 교육국의 정현범 목사는 격려사에서 “이번 인덕대학의 전국고등학생 CCM대회를 바라보면서, 학원선교의 좋은 모델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땅 끝까지’라는 공간적 선교에 치중한 나머지, ‘세상 끝날 까지’라는 시간적 선교는 등한시 했습니다. 이제 선교의 패턴을 학원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초, 중, 고교에 더 많은 선교예산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우선순위를 학원선교에 두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그동안 학원 선교교육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함이 아쉽고 죄송스럽습니다.”고 하면서 진솔한 포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사실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위한 교단의 지원은 아주 미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교목들과 학원 선교사

들은 “한 영혼의 무게가 천하 보다 무겁다”는 무게를 온 몸으로 받아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늘도 묵묵히 오르고 또 오르면서 희망을 일군다. 착하고 충성 된 종들에겐 반드시 주님의 칭찬과 상이 준비되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자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이 따르기 때문만은 아니다. 교단 차원에서 또는 교회 차원에서 벽을 넘어 타자를 위한 희생과 헌신, 더 나아가 한 생명을 위하여 미래의 꿈나무들을 영적으로 가꾸는 학원 선교에 충력을 기울여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

학원선교교육의 키워드는 <사랑과 관심>이며 동력은 <땀과 눈물의 기도>이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인덕대학교 강당을 가득 메웠던 고교생들의 찬양의 열기가 그 해의 겨울을 데운다. 그렇게 순수한 영혼들의 함성과 몸짓들은 주님께 올리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배이다.



‘교육과 문화, 삶 속에서 이야기하다’

하루에 진심을 담아 살아가자



이진용 목사

합천 초계중앙교회 담임

초계중앙교회의 시작 - 꿈, 그리고 삶

2006년 1월, 신대원 졸업을 앞두고 그동안 기도로 준비해 온 농촌목회, 해외선교사, 교회 개척의 기로에서 우연히 알게 된 경상남도 합천군에 대한 정보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전국에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가장 낮고(약 5%), 합천군 내에서도 가장 지역텃세가 심하며, 교회가 한 번도 들어서지 못한 마을이 많다는 점들이 단 하루만에 장소를 정하고 10평 공간을 월세로 임대하여 개척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농촌, 해외선교, 개척’이라는 마음 속 비전 가운데 해외가 국내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목회의 첫 출발에 대한 설렘이 많았습니다.

목회지로 나오기까지 꽤 많은 준비와 연단을 했다고 생각했기에 어려운 현실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꿈을 꾸기에 막연하지도 않았지요.

그러나 꿈은 삶을 만나면서 또 다른 연단과 준비를 하게 하였습니다.

4월에 교회 십자가를 올리고, 5월 1일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시작된 영육간의 전쟁은 무서우리만큼 목회자의 가족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찾아오는 무당, 주일 예배때면 예배당 입구에 버려져 있는 개똥, 유리조각, 담배꽂초, 소금, 심지어는 지네들까지...

아내와 아들, 가족끼리 드리던 예배의 찬양 소리에 시끄럽다며 찾아와 돌을 던지거나 얼음

물을 뿌리고 가는 일, 주일예배 중 부적 태우는 연기를 예배당 안으로 부채질하는 일 등...

낮을 들고 사택에 들어와 십자가를 내려달라는 사람까지...

약 1년이 넘도록 마치 저와 제 가족들이 얼마나 버티는지 보려는 시험과도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개척의 시작은 꿈이 현실과 마주하며 삶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살면서 들여다보기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10평 채 안되던 예배당을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마을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개척된 초계면은 그래도 합천군 동부지역 6개 면을 통틀어 유일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인지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학교는 있지만 교육, 문화와 관련된 시설과 프로그램이 지역에 전무하였기에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니고 학교 운동장에서 서성거리다가 만나게 된 저에게 아이들은 하나 둘씩 관심을 주었고, 차츰 함께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마을에 ‘작은도서관’을 준비하는 사역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평 공간이 너무 협소하였기에 결국에는 면 소재지 중

안에 35평 공간을 마련하여 도서관과 공부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하루 100여명이 넘는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반기는 시선은 없었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에 차츰 교회를 감싸주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마을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렇게하여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기본적인 학습, 독서지도, 개인독서실 운영, 다양한 교육과 문화 활동을 통해 마을이 절실히 필요로 하던 부분을 교회가 감당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도 살면서 들여다보니 감당할 몫을 찾게 되었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문화자립

농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젊은 세대는 계속해서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남아 있는 노년 세대가 돌아가시고 나면 사라지는 마을도 10여년 후에는 많아지리라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이 비어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로 ‘자녀교육과 문화의 부재’ 그리고 ‘경제활동영역의 협소함’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중에서도 경제적인 이유보다 자녀의 교육과 문화 혜택의 부재가 30~40대 농촌 가정의 고민입니다. 읍을 제외 한 대부분의 면소재지에도 변변한 교육, 문화 시설이 전무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과 ‘청소년공부방’ 그리고 실질적인 교육문화 자립운동을 통해 농촌의 사라진 문화를 찾아내고, 새로운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감으로 오히려 도시보다 접근이 용이한 문화적 장점을 살려내어 살고 싶은 농촌, 다시 돌아오는 농촌, 살맛나는 농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교육문화자립’이란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자

립 계획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초기 ‘교육, 의료, 문화’ 분야에서의 접근이 지금 이시대 농촌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곧 해외선교를 큰 비중으로 여기는 요즘, 국내 소외지역 또한 선교지로 바라보는 관점으로서의 전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과 문화의 현장이 물질주의와 맞물려 경쟁과 대립의 혼탁한 모습으로 잘못 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에 건강한 기독교 정신과 살아냄을 통해 지역의 교육과 문화 자립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도토리와 친구들’ 작은도서관 & 청소년공부방 - ‘별과 책, 그리고 꿈’의 만남이 있는 곳

‘복음 위에 세워진 문화자립’을 비전으로 교육, 문화 사역을 9년째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현재 하루 30~40여명이 방문하여 독서와 놀이, 문화교실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어린이들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강좌교실과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후 저녁 11시까지는 약 30여명 청소년들의 자기주도학습 중심 공부방으로 정부와 지자체 지원 없이 운영됩니다.

또한 도서관 개관 때부터 함께 꾸게 된 천문대 건축의 꿈은 분지 형태의 면 특성에서 시작되어 매일 밤 별자리 관측과 자연스럽게 별보며 상담하기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배우고, 별을 보며 꿈을 이야기 하는 가운데 조용했던 농촌마을에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부방을 거쳐 졸업한 아이들 중에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방



학 때 마다 고향에 찾아와 봉사활동을 하고, 전교에서 꼴찌를 하던 아이가 다양한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갖고는 전교 일등이 되더니 결국 전액 장학생으로 원하던 대학에 당당히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9년 전 교회 개척 초기와는 많이 달라진 지역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도서관을 통해 장학금 전달을 하고자 하는 마을 분들의 손길도 많아졌고, 도서관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매 주 월요일 색소폰 교실, 화요 해금 교실, 수요일 우쿨렐레 교실에 마을 면장님부터 과일가게 아저씨까지 즐겁게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는 도서관과 공부방 운영비를 마을 분들이 십시일반 매월 모금을 하여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입니다.

도서관과 공부방을 중심으로 한 교육문화 자립 프로젝트는 해를 거듭하면서 구체화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문화자립 프로젝트 - '도토리의 꿈'

도서관과 청소년공부방을 중심으로 진행해 오던 사역을 조금 더 넓혀 지역 공동체는 물론 광범위한 대상들과의 접촉점을 갖기 위하여 2011년 가을에 문을 연

제 초콜릿 전문점 카페 '도토리의 꿈'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 꿈'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립된 농촌의 한계를 '문화 접촉점'으로 삼아 사역 범위의 확장과 동시에 지역을 활기있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로, 카페 실내 및 실외에서의 정기공연 문화를 통해 지역은 물론 외부 참여자들의 방문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매 월 '인디밴드 페스티벌'을 통해 서울 및 대도시 중심의 공연문화를 작은 면단위 시골 카페에 적용하여, 매 회 100~400명의 관객이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진주, 창원 등 각지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먹거리와 숙소 활용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가장 크게는 지역 어린이, 청소년 및 가족들에게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팀으로 왔던 인디가수 가운데 한 분은 문화자립 프로젝트에 공감하여 이후 재능기부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근교 실용음악 대안학교 학생들과의 방문하고 있습니다. 년 2회 '6박 7일, 뮤직캠프 - 악기교실'에 지역 청소년들이 대부분 참여하여 실력을 쌓아가고 있으며, 실용음악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또한 지역 청소년 밴드도 결성되어 매주 주일 오후 연습과 발표의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한 주간 동안 ‘물축제’와 ‘물축제 캠프’가 준비됩니다.

전국 최고 더위를 자랑(?)하는 합천의 단점을 오히려 이용하여 가장 덥지만 찾아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일을 축제화 하려 합니다.

길게 늘어선 면 소재지 구석구석을 물 축제의 주요 공간으로 삼고 후원자들과 지역 공동체 가족들이 직접 준비하고 실행하는 축제로 만들어 봅니다. 또한 2박 3일 또는 3박 4일로 물을 테마로 한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미 두 행사 모두 2007년 여름부터 진행해 오며 뜨거운 반응과 관심을 이끌어 냈습니다. 올해는 합천군 시책으로 진행된 카누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카누를 보유하고, 물축제 및 캠프와 연계하여 카누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작업’으로 벽화 그리기를 진행 중입니다. 벌써 7년째 마을 골목, 학교 담장, 개인 집 울타리 등에 벽화를 그리면서 마을의 소통과 활기를 이끌어 갑니다. 이는 벽화그리기 후원자들과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작업으로, 벽화그리기 기간동안 자연스레 캠프 형식으로 진행되어 교육적으로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자립 프로젝트

매년 학교가 폐교되고 농촌의 색깔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도시교육 따라잡기 식에 열매도 없는 것이 농촌교육의 현실입니다.

이에 멘토링 제도를 중심으로 어린이, 청소년들과의 상담, 놀이, 여행 등을 통한 꿈과 비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봅니다.

6년째 진행하는 지역 청소년 ‘멘토 멘티 스쿨’을 통해 매 회 50여명의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돌아보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 갑니다. 이는 매 년 여름마다 농촌선교를 희망하는 도시 교회 청년들의 도움을 받거나 온누리교회 허브지체들의 참여로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부방 자체에서는 년 2회, 6박 7일 비박 걷기와 국토순례를 통해 심신을 단련합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활동을 함으로 서울의 대학에 합격하기도 하고, 봉사, 자기개발, 심신단련 등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전인적인 자라남이 열매를 보기도 합니다.

서울로 진학하게 되는 학생들을 위한 숙소 마련에도 교회가 앞장서서 지역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시 대학 근처에 전세로 숙소를 마련하고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4명의 대학생들을 위한 숙소를 준비해 농촌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가고자 합니다.

2014년도부터는 본격적인 교육자립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도토리 청소년 여행대안학교’를
오픈하여 예술, 여행, 독서 등을 통해 지역 뿐
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역
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셋째, 다양한 지역 활동

합천군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매 월 녹
음방송 아나운서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식을 접하기 힘든 장애인들과 노인
분들을 위한 방송으로 군, 면 단위 소식과 개
개인의 사연, 음악까지 담아 보내드립니다. 이는
합천군 복지관 직원들과 함께 이 일을 위해 만
들어진 전용방송국에서 작업을 합니다.

지역 중학교 방과후 연극교실 강사로 활동합
니다. 주 2회 2시간씩.

매 월 1회 산촌마을 어르신들의 가정에 찾아
가 전구 교체 및 전기작업, 방충망 교체 작업과
년 1회 의료봉사(침, 뜸, 안마, 링겔 등), 매년 겨
울 사랑의 연탄나눔(매년 1만장)을 하고 있습니
다.

3년 전 문을 연 도토리의 꿈 카페에서는 바
리스타로, 사모는 쇼콜라티어로 재능기부를 하
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민들과 만나며 전체 사역
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자립 프로젝트의 가장 근원에는
프로그램 또는 물질이 아닌 일상의 영성과 철학
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목회
의 목적과 과정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고 건강하
다면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해하는 관점도 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
역과 별개로서의 교회가 아닌 지역 안에서 함께
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하며, 교회의 비전이 지
역의 비전으로서도 손색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타지로
나가게 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교
회의 사역이 당장은 교회부흥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거나 열매없는 투자 식으로 이해가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농
촌교회의 수고는 분명 지속가능한 농촌의 건강
한 발전에 핵심이 되리라 여겨 봅니다.

9년의 열매

그동안의 교육문화 프로젝트의 최고 수혜자
였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예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20명의 청소년들이 찬양팀과 예배 준
비, 교회의 사역에 일꾼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한 부모는 나오지 않아도 자녀만큼은 이 교회
로 보내야지 하고 보내시는 분들도 생겨났습니
다.

꾸준히 진행되어 온 문화공연은 지자체의 요
구로 관광코스로 연계되어 진행되며, 귀농귀촌
프로그램과도 이어져 지역에 정착하는 일도 생

겨나고 있습니다.

9년 전 이단으로 여겨지던 감리교회의 이미지가 180도 바뀌었으며 요즘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의 예배 참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회의를 거쳐 도서관, 공부방, 카페의 모든 관리비용이 마을 분들의 후원금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으로 공부해 온 공부방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취업이 귀한 열매입니다. 9년 전과 지금의 차이는 지역민들이 확연히 느끼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역 학교들과 연계하여 자매결연, 졸업여행, 방과후 활동,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하면서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과 생활을 만지고 있습니다.

목회자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혼자 일해 온 고물 모으기는 이제 마을 주민들의 적극 동참과 방문하시는 분들의 참여로 조금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빈병과 폐지, 의류가 나올 때 마다 전화주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아예 모아두셨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커피 한 잔 하러 왔다고 하시며 내려놓고 가시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앞으로의 비전과 방향

• 공연 전용 소극장 건축

농촌 작은 마을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공연 전용 소극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교육 문화 사역들을 더욱 활성화하며, 보는 공연에서 나아가 지역 어린이, 청소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또한 전국의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작업 및 삶의 공간, 그리고 공연으로 연계하는 소극장으로 가꾸려 합니다.

• 천문대 건축

별자리 관측이 가능하고, 텐트 및 천막을 이용한 캠프가 가능하여 가족단위 혹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 꿈과 희망이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합니다.

• 가정 회복 프로젝트

- 비폭력대화 세미나
- 가족 게스트 하우스 운영
- 목회자 자녀 및 사모 힐링 캠프

“공간을 만들어간다.” - 큰 건물을 세우고 건축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꿈이 실현되어지는 지역에 필요한 어울리는 작은 공간 만들기에 비중을 둡니다.

이미 세워진 비전의 자리가 극장이요, 천문대요, 사역의 공간입니다.

교육문화자립의 바탕

- **전문화** - 세상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뒤지지 않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지역화** - 외부에서의 지원은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지역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리더 및 협력자를 세워갑니다.
- **복음화** - 교육문화자립의 핵심에 반드시 자리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된 양육과 교육철학이 소통되어야 합니다.
- **토착화** -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지역과 호흡하지 못하면 어색해 집니다. 지역의 특성에 어울리는 교육과 문화를 찾고, 만들어 갑니다.
- **친환경화** - 농촌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환경을 지키고,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참고사항

- 네팔의 도서관운동 - 리드네팔
- 중국의 농촌문화운동 - 장예모 감독의 인상유상저
- 태국의 물축제 - 송크란
- 윈윈 여름 캠프의 물축제 - 삼일교회 윈윈

교육문화자립을 꿈꾸며...

위에서 많은 DOING을 이야기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BEING을 이해해야 합니다. 필요에 의해 움직이며 사역의 활동을 감당하지만 이보다 앞서 그 자리를 지키는 존재의 깊이를 누릴 때 오래 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안에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 도시에서 지방 각 지역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지역만의 특색과 자랑거리가 진정한 문화가 됩니다. 이는 지역민들이 먼저 누리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보여주기 식, 행사 식의 문화가 아닌 모두가 함께 누리고 나누는 준비된 문화가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소수를 위한 경쟁의 교육, 목적 없는 교육의 행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육철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건강하게 서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닌 일상 속에서의 영성을 찾기에 큰 숨을 쉬어야 하겠습니다.

- 복음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해 가야 합니다.
- 또한 교회가 지역과 함께 이끌어가야 합니다.
- 상업적 문화가 아닌 교육적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문화자립은 지역을 젊고, 건강하게 만들며, 살맛나게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지

역 속에서 제역할을 감당해 가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꿈을 꾸면 그건 한갓 꿈에 불과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새로운 현실의 출발이다.” - 훈데르트바서

예수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중보하며 꿈을 키워 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마을교회 청소년 사역 이야기



정지윤 목사

충주 예수마을교회 담임

청소년이라고 하면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외계인’이라고 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외계인’같은 청소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청소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심을 느꼈던 시기는 2010년 충주에서 수련목회자로 사역할 때입니다. 청소년·청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해야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충주 관내에 있는 여고를 통해서 예배 사역을 다시 일으키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 후 어떻게 여고에서 사역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학교에 아무런 모임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담당하던 교회의 학생들에게 예배가 무엇이고, 세상속의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예배하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1회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관한 ‘복음’을 그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회 때에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그들이 직접극본에 담아 공연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우쳐주기 위해 기획하고 충주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와 교회에 포스터를 붙여서 초청하여, 충주시의 청소년들이 음악과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놀라웠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학교 안에 기도모임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청소년들을 통해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세대로 준비시켜서 한국 땅을 새롭게 하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청소년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마음을 저에게만 부어주신 줄 알고, 혼자 끙끙대면서 속 앓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년이 지날 때 쯤 교역자 산상성회에 참석했을 때 강사 목사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청소년들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감동을 받았으며, 그래서 50대가 넘는 시점에서 세대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청소년들을 위해 사역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큰 충격과 더불어 마음의 부담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곧장 그 비전에 대해서 주변 목회자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고, 거룩한 세대를 준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 같이 동역하자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주 가까운 곳에 그런 사역자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끙끙 대기만 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지 못했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동역자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산상성회 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할지, 그리고 학교를 어떻게 복음화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충주시 청소년 연합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둠에 새빛을..”이라는 연합예배였는데 이 예배를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8월, 2012년 9월에 충주시 인근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15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학교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연합예배를 다시 시작한 무렵인 2012년에 학교기도모임을 꾸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도모임을 시작하였지만 이내 학생들이 포기하면서 학교기도모임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학교를 복음화 시켜야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세상속의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한 목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 그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충주교회 청소년 한명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교를 열기 시작하면 다른 학교도 열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한 고등학교의 학생과 학교복음화를 위한 기도모임에 관해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일단 학교 안에 있는 크리스천 선생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돕는 방식은 한계가 있기에 선생님을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찾던 중 그 학생과 친분이 있는 선생님께서 크리스천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선생님께 학교기도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지도 교사로 도와줄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상외로 아주 흔쾌히 지도교사로 도와주시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강의실을 확보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영어강의실이 점심시간에 사용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학교 기도모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없기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되 매주 학교에 들어가서 설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복음화 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그 기도모임은 2년 정도인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2014년 올해에는 학교 정식 동아리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학교에 기도모임이 열리고 유지된 일도 큰 기쁨이고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학생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그 기도모임에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친구들, 다녔다가 말았던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기도모임에 온다는 소식이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웠습니다. 더 큰 은혜와 감격은 교회를 가지 않던 학생들이 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몰려옵니다. 저희 교회(예수

마을교회)를 다니고 있는 4명의 청소년들도 그 기도모임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학생들이입니다.

어렵게 시작한 기도모임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2013년도 충주시 연합수련회와 연합집회로 이어졌고, 학생들에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학생선교사로 학교를 복음화 시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 결과 현재 8개의 학교에서 기도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기도모임에 참석하는 전체 학생들이 모여서 매월 말 Campus Worship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비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게 하시고 마음을 부어주시고 일하게 하셨던 것도 주의 은혜이며 또한 그 일을 혼자하게 하지 않으시고, 청소년과 선생님과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장소와 전략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지만 이 땅에 청소년들이 거룩한 세대로 준비되고, 일어나서 한국 땅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나라로 회복되며, 모든 입술이 주를 시인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는 말씀처럼 다만 제가 할 일들에 대한 충성을 구할 뿐입니다.





배화여자고등학교 교목
이기성 목사

자교교회와 배화여자고등학교 이야기

감리교계통학교와 자매교회 관계성의 현재와 미래

1. 배화학원과 자매교회의 관계

배화학원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개화의 여명기인 1898년 미국 남 감리회의 여선교회에서 최초로 한국에 파송된 조세핀 필 캠벨(Josephine P Campbell)여사에 의하여 설립되어 올해로 115년의 전통을 이어온 기독교 사학입니다. 배화를 세운 캠벨 여선교사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교육 사업으로 한국과 교회를 위한 여성 지도자를 배출할 학교를 세우는 것이요 또 하나는 전도 사업을 통해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캐롤라이나 학당으로 시작되어 배화학원이 되었고 루이스워커예배당(Lousie Walker Chapel)을 거쳐 종교교회와 자교교회로 실현되었습니다.

감리교회의 학원선교회를 통하여 감리교계통학교들이 일반 교회들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지만 배화학원과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종교교회와 자교교회는 자매결연을 넘어 친자매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체가 바로 배화학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배화학원 안에 있는 중학교와 대학은 종교교회와, 고등학교는 자교교회와 자매결연이 되어있어 교회의 많은 후원을 통해 학원선교교육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 자매교회의 후원

자매교회의 후원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목실에 대한 후원입니다. 이렇게 지원된 후원금은 교목실 운영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배화여고 같은 경우는 교목실에 학생들을 위한 사탕을 사다놓거나 교사들을 위한 간식을 마련해놓습니다. 학생들이 사탕을 가지러 교목실에 오면 이를 통해 학생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또한 교사들도 교목실을 찾아 마음의 쉼을 얻으려하기에 이들을 위한 간식을 준비하여 언제든지 편히 쉬기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목실은 다른 교무실과 달리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나 교사 모두가 자유롭게 드나들며 편히 쉬기도 하고 또 사소한 일이라도 목회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친분을 쌓다보면 이를 통해 신앙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목실에 대한 후원은 학생들에게 선교하며 신앙상담도 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학금의 지원입니다.

학교는 장학위원회가 있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장학금은 이 장학위원회를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매교회에서 후원하는 장학금은 전적으로 교목실을 통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성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과 달리 신앙심이 좋고 교목실의 선교교육활동을 돕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때로 갑작스럽게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국고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있어 급식비나 수업료 등을 교목실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교목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자매교회의 장학금은 교목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돕고 교목실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플의 지원입니다.

배화는 매주 전교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채플을 드리고 있습니다. 절기에 따른 예배도 함께 드리는데 특별히 추수감사예배에는 학생들에게 세례식도 베풀고 있습니다. 자매교회에서는 부활절예배에 계란을, 추수감사예배에는 떡을 보내주십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교목실에서 할 수 없어 자매교회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예배 때에는 자매교회의 목사님께서 세례식에 참여하여 은혜로운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한 세례 받는 학생들에게 선물도 준비해주시합니다. 해마다 세례를 받는 학생들이 100여 명 씩 황금어장인 학교는 교회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 배화학원은 지방회를 통하여 학원 선교교육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배화여고는 해마다 9월이면 클래스미션(Class Mission)을 하고 있습니다. 채플시간에 종로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학교로 초청되어 각 교실마다 한분씩 들어가 학생들과 예배드리고 좋은 말씀도 전합니다. 이를 통해 종로지방에 속한 교회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좋은 이야기와 말씀을 통하여 학생들의 심성에 예수님을 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종로지역에 속해있기에 학생들에게 교회를 알리고 교회를 가고 싶지만 주저했던 학생들도 쉽게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종로지방에서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를 대접하기에 학생들은 더없이 좋아합니다.

종로지방 여선교회에서는 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때로 교회에 특별헌금이나 혹은 바자회를 통한 자원이 생기면 교목실을 지원해주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자매교회에서 학교를 위하여 그리고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시는 것이 기도의 동역자로서 교목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자매교회에 대한 제언

학교는 선교영역으로 볼 때 황금어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말처럼 그렇게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학교를 지키고 있는 교목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에 앞서 임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예배, 성경과목, 특별활동 등 선교를 위한 기독교교육에 제약을 받음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운영자인 교육실무자들마저도 행정 당국과의 마찰을 염려하여, 기독교교육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성경과목이나 기독교 행사 등의 실시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학원목회자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목과 성경 교사의 경우 주당 14-20시간 정도의 수업을 담당하면서 각종 예배 및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학원목회자들은 목회자로, 교사로, 선교사로, 학생과 교사를 위한 상담가로, 찬양사역자, 문화사역자로, 각종 행사의 프로그래머로, IT(정보통신)개발을 위한

사역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즉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만능엔터테이너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학생을 위해 예배인도와 수업만 하는 사람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지만 학원목회는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학원선교교육은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학교를 향한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학교는 그 처음부터 자생적이거나, 임의적인 산물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신앙 공동체에 의하여 창조되고, 유지되며, 또 그 의미를 부여받은 학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

회는 처음부터 학교의 모체였으며, 지지자였으며, 옹호자이며 변호자였습니다. 곧 기독교학교의 이념적, 행정적 그리고 정치적 후원자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학원선교교육의 극대화(기독교세계관 함양, 올바른 인성 교육, 이웃사랑,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 영적 비전을 통한 청지기 사명)를 이루어가도록 교목과 학교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지원과 함께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참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 변화의 시작 - 학원선교교육

명지고등학교 교장 황남택 장로

들어가는 말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 등 청소년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10-30대 죽음의 원인 1위가 자살이며, 상담실 통계에 의하면 2012학년도 1학년 648명 중 115명, 2학년 568명 중 92명, 3학년 632명 중 95명, 총 1,848명 중 302명이 <자살을 생각한 학생들>입니다. 청소년들의 학생정서행동발달검사(특성검사) 2012년도 전학년 관심군 595명(32%)일 정도로 정신 지수가 낮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배려심보다는 이기심과 경쟁 속에 살아가는 학생들 속에서 삶은 위축되고, 어깨는 무거워져만 갑니다. 청소년 문제의 해법을 기도와 나눔을 가르치는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찾습니다.

가운데 말

• 기도하는 사람

저희 학교는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교무실에서는 교직원 조회 전에 교직원들이 돌아가며 순서를 맡아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일과를 엽니다. 교실에서도 학생 조회 전에 방송으로 큐티 시간을 가집니다. 담임교사는 교실에 입실하여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체크하고 문제 있는 학생들이 있는 지 표정과 상태를 바라보며 파악합니다. 큐티는 교목실에서 주관을 하되, 입시 등 특별한 경우 자원을 받아 학급목회 지원팀이나 3학년 담당 선생님도

함께 하십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닌 진리 안에서 자유인이 되도록 사랑과 봉사와 섬김과 나눔 등을 주제로 실시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시사적인 내용이나 체험담, 드라마, 영화, 학생들의 에피소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시작하여 조용히 기도로 마무리 합니다. 수시와 대입이 가까운 상황에서는 고3학생들을 위해 말씀으로 응원하고 전교생들이 선배님 혹은 제자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청소년 문제가 많은 시기에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어려운 순간 순간 모두 기도로 하나가 됩니다.

제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절)”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는 말씀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당하게, 미소를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적극적,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 또한 가정, 친구, 이성, 성적 등으로 고민 되어질 때 아무런 꾸밈없이 절대자 앞에서 자신



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직원도 스승되신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교육에 임해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 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연의 학생들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구합니다. 그 분의 뜻과 음성에 귀기울여 나아갈 때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이미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에 걸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 하리라(사 20:1)”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통곡하며 전심으로 구하여 15년 수명을 연장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될 수 있었던 것은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마음으로 함께 ‘합심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파장을 진정시켜주고, 자신과 공동체를 살립니다. ‘타자를 위한 삶’을 사셨던 주님이 내 안에 임하고, 공동체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나눔의 행복

저희 학원의 정관에는 ‘이 법인은 순수한 복음주의 기독교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및 유치

원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의 작은 명지의 씨앗이 나무가 되어 이제는 숲을 만들어갑니다. 학교의 상징인 나무는 세상의 유혹과 교만을 따라 자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가 아닙니다. 기도로 세워진 설립정신에 따라 인류에게 혜택을 베푸는 나무요, 민족과 인류문화에 기여하는 거룩한 나무입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구원과 생명의 나무입니다. 교육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의 큰기둥으로 세워질 학생들의 미래를 기대하며 나눔의 삶을 체험합니다.¹

각종 절기를 지내면서 나눔의 삶을 실천합니다. 월드비전 등 국제구호단체 활동을 통해 이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기아체험’을 통해 직접 굶어도 보고, 부스체험(굶주림, 기후변화, 식수, 내전, 아동노동, 에이즈), 세계시민교육, 지구촌 문제 대안 찾기, 인권 신장 등을 배웁니다. 5세 미만 아동의 질병과 주민들의 수인성 질환 감염을 막기 위해 ‘캄보디아 시엠립 지역 식수 설치 사업’ 모금을 합니다. 썩지 않는 빵인 ‘사랑의 빵’ 저금통으로 ‘스리랑카 희망의 학교 세우기’에 참여합니다.

부활절 달걀을 모으거나, 추수감사절을 통해 사랑의 쌀을 모아 ‘밥퍼 운동본부’ ‘독거노인’들에게 보내고 ‘기념떡’을 만듭니다. 과일을 모아 치매원과 재활병동 등에 전달하고, 치매원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봉사와 장기자랑도 합니다. 소록도에서 지내시는 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불행의 역사를 믿음으로 극복하신 분들을 돕니다. 그 분들의 평안 속에 자신을 돌아보며, 모두가 마음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인문사립학교 최초(2006년)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특수반을 설치하여 그들 모두가 일

1 “명지학원의 설립정신을 깊이 되새기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지학원은 기독교적 진리를 기초로 설립되었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든 설립정신이 살아 있고, 그 정신에 충실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설립정신과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인재배출의 비전을 공유하고, 믿음과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우리의 교육적 소명을 다하여,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육기관으로 만들어나갑시다.”(2014년 명지학원 송자 이사장 신년사 중)

반학생들과 함께 다르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갑니다.

나가는 말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 교회와의 연대 속에 기독교학교가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레인들을 양성하여 지역 교회로 인도하고, 졸업 후에도 교회와 사회로 파송하는 학원선교는 황금어장입니다. 학원선교교육에 대하여 많은 기도와 후원을 기대합니다.

기독교 사학은 기독교의 설립정신,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기독교 사립학

교는 그 십자가의 정신을 중심으로 교육적이며 거룩한 신념을 위해 나아가는 장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받는 자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케 하는 중요한 인성 교육의 장이 바로 기독교학교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눈 앞에 좋은 것, 탐욕만을 채우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행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변화 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인재를 양성하는 선교의 장이 학원선교교육주일을 맞아 더욱 왕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리교계통학교와 자매교회 현황

번호	학교	이사장	교장	교목	자매교회	담임목사
1	경화여자중학교		최진복	우종억	대림교회	임준택감독
2	경화여자고등학교	김득연	최진순	김정석	신평교회	김연규목사
3	경화여자E비즈니스고등학교		서영옥	강태욱	만나교회	김병삼목사
4	경일고등학교	윤형섭	권영훈	오광석		
5	광성중학교	최준수	남원진	허광열	성광교회	방원철목사
6	광성고등학교		엄재유	김신원	은제교회	김응용목사
7	대전대신중학교		전용만	배미영		
8	대전대신고등학교	이강년	한상덕	서정식 국성호	천성교회	조성근목사
9	덕신고등학교	강효성	고승의	김세환 김은숙	강화중앙교회	장영철목사
10	명지고등학교	송 자	황남택	김종화	모래내교회	윤병조목사
11	매향중학교	김호섭	고정진	김학석	영화교회	김 철목사
12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박정화	강영옥	수원종로교회	안희선목사
13	서울문영여자고등학교	박종세	방원자	박성환		
14	서울문영여자중학교		한정훈	박성환	광림교회	김정석목사
15	배재중학교		서명석	신영경 김상진	수표교교회	김용성목사
16	배재고등학교	황방남	김용복	장운석 박성중	정동제일교회	송기성목사
17	배화여자중학교	정하봉	홍대희	김은철	종교교회	최이우목사
18	배화여자고등학교		유환옥	이기성	자교교회	신현구목사
19	산돌학교	전용재	이은재	서형준		
20	삼일중학교		백일현	최리균 박진성	안양교회	임용택목사
21	삼일상업고등학교	서철	민찬홍	김경진	도봉교회	이광호목사
22	삼일공업고등학교		소진억	김학규	수원성교회	지상천목사
23	서울관광고등학교	정의선	조금석		중앙교회	정의선목사
24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박종세	한상국	박성환	광림교회	김정석목사
25	서울예술고등학교	이대봉	금난새	임영호 김은주	세검정교회	황문찬목사
26	성신여자중학교	김순옥	김옥진	최종혁	돈암동교회	김동걸목사
27	성신여자고등학교		최경호		돈암교회	현인호목사
28	송도고등학교	이수영	오성삼	조희영	부천성은교회	허원배목사
29	영란여자중학교	장명수	김애희	이평일	예수마을교회	임석한목사
30	공주영명중학교	표용은	이기서	유혜종	공주중앙교회	황충호목사
31	공주영명고등학교				공주제일교회	윤애근목사
32	영화관광경영고등학교	김흥규	김정연	이광선 김현정	내리교회	김흥규목사
33	예원학교	이대봉	이종기	서세훈	아현중앙교회	이선균목사
34	웨일즈국제학교	박명홍	성 백	박재현	군자중앙교회	박명홍목사
35	온양한울중학교	김진우	권영일	김향아	대명교회	김영호목사
36	온양한울고등학교		박우승		한마음교회	최형근목사
37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김기종	강사경	하은용		
38	이천양정여자중학교		장대식	문은실	이천중앙교회	김종필목사

번호	학교	이사장	교장	교목	자매교회	담임목사
39	이화미디어고등학교	장명수	최진자	이대길 차은혜	금호제일교회	채교열목사
40	이화여자고등학교	이기우	강순자	국화용 이영복	정동제일교회	송기성목사
41	이화외국어고등학교	이기우	한현수	김형석	은평교회	김영현감독
42	이화여대사대부속중학교	장명수	한종임	이현숙	창천교회	노정일목사
43	이화여대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		이종경	조종철	대신교회	홍원영목사
44	인덕공업고등학교	강범석	장흥로	최철기	성천교회	김기택목사
45	재현중학교	김진우	기우탁	김의태	서울제일교회	심규환목사
46	천성중학교	한주호	최정환	김봉환	하늘중앙교회	유영완목사
47	천안상업고등학교		박준구	김창수	하늘샘교회	이성수목사
48	청신여자중학교	이경자	강신호	강석구	청양교회	김종태목사
49	태광중학교	김기영	황지연	최한영	기쁜교회	손웅석목사
50	태광고등학교		최종일			
51	파주중학교	최애도	이승정	김중배	삼양교회	정진권목사
52	세경고등학교		오순석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
53	팔봉중학교	정계훈	조영선	박정수	서산제일교회	이구일목사
54	팔렬중·고등학교	이기우	신학봉	이광채	월곡교회	김종훈목사
55	호수돈여자중학교	이경자	임광순	김형일	논산제일교회	남문희목사
56	호수돈여자고등학교		임록주	주금섭	하늘문교회	이기복목사

감리교계통대학교 현황

학교명	이사장	총 장	교 목
감리교신학대학교	이규학	박종천	
목원대학교	박영태	김원배	안승병 이광주 손삼권 김청봉
협성대학교	서 철	장동일	유성준 손성수 이광선
연세대학교	김석수	정갑영	한인철 조재국
이화여자대학교	장명수	김선욱	손운산
안산대학교	임승룡	김주성	노현수 김재중 김진희 김성희
배재대학교	황방남	김영호	이성덕 이성구 송광수
남서울대학교	이재식	공정자	이사야
배화여자대학교	정하봉	김숙자	전병식 김언영
인덕대학교	강범석	이우권	구완서 장형철

학원선교회 조직

지 도 위 원 김기택 감독 황방남 목사

증 경 회 장 김진호 감독 신경하 감독

회 장 김중훈 감독

부 회 장 남문희 목사

총 무 김영호 목사

협 동 총 무 정현범 목사

서 기 최형근 목사

회 계 박춘희 목사

감 사 강홍복 목사 윤병조 목사

간 사 김중남 목사

교목회 조직

회 장 최리균 목사(중고등학교) / 안승병 목사(대학교)

총 무 박성환 목사(중고등학교) / 전병식 목사(대학교)

회 계 주금섭 목사(중고등학교) / 이사야 목사(대학교)

서 기 김은철 목사(중고등학교) / 이사야 목사(대학교)



기독교학교 교육헌장

1.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그에게 응답할 수 있는 책임적인 존재임을 믿는다.
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인간의 모습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와 대업에 동참할 수 있음을 믿는다.
3. 우리는 인간의 역사가 우연이나 숙명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의 터전임을 믿으며 우리는 그의 목적과 완성의 날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믿는다.
4. 우리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인간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장소로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간성이 개조될 수 있음을 믿는다.
5.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악과 부정을 제거함으로써 공정하고 협조적인 새 질서를 수립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이 기독교학교가 가지는 독특하고 신성한 사명임을 믿는다.

(1970년 9월 25일 제정)

